

## 아오시마 신사: 모토미야

모토미야(본래의 신사)는 예로부터 숭배와 제사의 장소로 여겨졌던 아오시마섬의 정중앙에 조성되었습니다. 모토미야의 지하에서는 야요이 시대(300 BCE-300 CE)에 종교적인 의식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토기와 뼈, 조개껍질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곳 아오시마섬에 처음으로 신성한 건물이 들어선 것은 1,000 년 이상 전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에도 시대(1603 - 1867)에는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기원하며 신앙심에 대한 증명으로 머리카락 다발을 두고 갔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날에 전해지면서 참배자들은 신성한 지승을 신사와 가까운 나무나 줄에 묶어 소원을 빌게 되었습니다. 1907 년에는 당시 요시히토 황태자(훗날의 다이쇼 천황, 1879 - 1926)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 여러 왕족들이 모토미야를 찾아 참배를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신도(神道)의 신관과 황족만이 출입할 수 있었으나, 1960 년대 말에 들어 일반인도 신사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